

# 동복리 LNG 복합발전소 건설 입장 엇갈려

어제 도의회 주최 건설 필요성 점검 토론회 열려  
도 에너지대전환 정책 부합 여부·타당성 등 다뤄  
“전력 안정 필수 설비” vs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이 제주도정이 내세운 ‘2035 탄소중립 실현’과 들어맞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발전소를 짓어야 한다는 한편에 제주도가 밝힌은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2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대전환 시대,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 토론회’에서다.

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한국 동서발전이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의해 제주시 구좌읍을 동복리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두고 제주도 에너지대전환 정책과의 부합 여부, 정책적 타당

성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48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9년까지 동복리 일원 16만2112㎡ 부지에 150㎿급 복합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다”며 “정부 국정 과제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 보급 확대’에 기반해 관련 연구·시범·실증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산업 성장,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동서발전에서는 복합발전소가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퍼크 시간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라며 “향후 무탄소 전원(수소)으로 전환해 제주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발전소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건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백지화를 요구하는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에서는 “과도한 전력 수요 추정에 근거해 가스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다”며 “정부 국정 과제인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BESS) 보급 확대’에 기반해 관련 연구·시범·실증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산업 성장,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로 참여한 김정도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실행위원회는 “수소 혼소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하나 물음표가 달려 있다. 기후 위기 속에 가스발전소를 짓고 탄소 배출을 늘리겠다는 건 2035년 탄소중립을 못 하겠다고 선

언하지 않은 이상 도정 계획과 반대로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거기다 남부발전·중부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가 생기면 경영 상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약 5000억원을 들여 짓는 게 국가 정책적으로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냐”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형철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운영실장은 “신규 LNG는 필수 발전기를 대체할 수 있고 기존의 재생에너지를 저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2035년까지 도정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 LNG의 경우 혼소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향후에 이 용량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목표하는 탄소중립 또는 2035 에너지대전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선희기자

당분간 기온·체감온도 ‘뚝’  
29일 한차례 눈·비 예보

당분간 평년보다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면서 춥겠다.

2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는 28일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겠고, 29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며 오후(정오~8시)에 비 또는 눈(산지)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 및 예상 강수량은 산지 1~3cm, 제주도 5mm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비가 내리는 해안지역에도 기온이 0°C 안팎으로 떨어져 젖은 도로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8일 아침최저기온은 1~2°C(평년 2~4°C), 낮최고기온은 5~9°C(평년 8~11°C)가 되겠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낮아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움츠린 관광객들 맹추위가 찾아온 27일 제주시 한림읍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몸을 움츠린 채 걸어가고 있다. 강희민기자

**수 축 상**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고 권 진  
(제주양돈농협조합장)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경원산업 임직원 일동

**당 축 선**  
**서귀포시재향군인회 회장**

박 종 철

서귀포시재향군인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효돈초등학교 제37회 동창회

**승 축 진**  
**부이사관(전국체전기획단장)**

홍 호 진

부이사관(전국체전기획단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남양홍씨 제주특별자치도 문종회 회장 홍은열 외 종친 일동

**당선 축 수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44대 전국총학생회장 대통령표창**

임용주 부위원장 김대승 위원

조천읍의 경경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국 총학생회장 당선과 대통령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조천읍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일동

## 교사 정기인사 예고… 총 969명 규모

도교육청 3월 1일자 단행

교장·교감 인사 내달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3월 1일자 교육공무원(교사)에 대한 정기인사를 27일 예고했다.

이번 정기 인사는 총 969명이다. 교사별로는 수석교사 1명, 초

과전 전·졸업 192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결원에 따른 충원, 학교 및 구역 만기에 따른 정보·전문성 및 직무수행을 고려한 배치, 단위학교 책임경영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조정 신청 기간을 거쳐 3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원 임용 인사 발표는 다음달 6일, 신규교사 임용 인사 발표는 다음달 10일에 각각 이뤄진다.

박소정기자

## 숨진 중학교 교사, 8개월 만에 순직 인정

사학연금공단, 지난 26일 심사 통해 결정

교원단체 “교육청 진상조사 철저 감사를”

지난해 5월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사망 이후 8개월 만이다.

27일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은 전날 열린 순직심사회의에서 숨진 제주 교사에 대한 순직(업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날 숨진 제주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사학연금 공단을 찾아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유가족을 위해 일부 지원은 집행을 완료했으나 향후 배우자와 자녀의 심리지원은 계속된다. 자녀 장기 치료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추진하고자 자녀 장학금과 교육 지원, 생활안전자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 도교육청 진상조사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마침표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학교 교무실에서 A씨의 유서가 발견됐고, 숨진 교사의 유족들은 “고인이 학생 가족으로부터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고 증언해왔다.

박소정기자